

하나님의 신언자들의 신성한 격려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회복함

성경: 스 5:1-2, 학 1:2-5, 7-8, 9하, 14, 2:6-7, 9상, 23,
속 3:9, 4:2-7, 11-14

- I. 하나님의 집인 회복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서 (제사장 직분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와 (왕의 직분을 대표하는) 스룹바벨은 모두 어느 정도 약해지고 낙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그분을 위해 말함으로써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강화하고 돕고 격려하게 하셨다 — 스 5:1-2, 비교 고전 14:3.

- II. 학개의 신언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복지와 관련되고, 복원의 시대에서 천년왕국이 메시아와 함께 도래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 학 1:2-5, 7-8, 9하, 14, 2:6-9, 20-23, 마 19:28, 행 3:20-21.
 - A. 구약에서 여호와와 그의 집 혹은 성전은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집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그 다음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집인 몸 된 교회 곧 확대되신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 요 2:19-21, 딤후전 3:15.
 - B. 여호와와 그의 집은 교회의 예표이다. 그러므로 학개의 신언은 신약의 믿는 이들을 두고 말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예표의 실재이기 때문이다.
 - C. 학개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재건을 위해 그들과 백성에게 힘을 북돋아 주며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 스 5:1, 학 1:1.
 - D. 포로 되어 있다가 돌아와서는 자기 잇속이나 차리며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만 돌보았지 여호와와 그의 집은 돌보지 않았다(학 1:4). 학개서 1장 9절에서 ‘달려갔기’라는 말은 백성이 자기 집을 돌보는 데만 바빴음을 가리킨다.
 - E. 학개서 1장 6절은 우리가 교회를 소홀히 대한다면 결코 참된 누림이나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임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의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는 중립적일 수 없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집을 먼저 돌보든지 아니면 주님의 집을 먼저 돌보든지 할 수밖에 없다 — 마 6:33, 눅 9:57-62, 빌 2:20-21.
 - F.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영 안에서 분발되어 여호와와 그의 집에서 일하러 왔다.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여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께 사로잡혀, 주님의 집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믿는 이들을 먹이며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 — 학 1:14, 2:7상, 요 21:15-17.
 - G.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리니,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이가 올 것이다.” — 학 2:7상.
 1. 이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분이시다. 비록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다. 민족들은 빛과 사랑과 기쁨과 의와 같은 것들을 갈망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것들의 실재이시므로, 민족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 말 3:1하.

2.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빌론에 포로 되어 있는 데서 돌아오는 것과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회복되는 것에 달려 있다 — 뎀전 3:15, 뎀전 2:5.
- H.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 이 집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 학 2:7하, 9상.
1.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의 건축물인 여호와의 집 안에 있다 — 출 40:34-35, 왕상 8:10-11, 대하 3:1, 5:1-2, 13-14, 엡 3:21, 계 21:10-11.
 2. 에스겔은 하나님에 대한 이상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와 그 집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았다(겔 43:1-5).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겔 43:2, 5). 이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건축되어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엡 2:21-22, 3:14-21).
 3. 에스겔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집에서 흘러나와서 동쪽, 곧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겔 47:1, 43:2).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흐름은 제한될 것이다.
 4.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가 첫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주님의 영광이다. 교회생활 안에서 결정을 내릴 때 최우선적으로 주님의 영광에 부합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 엡 3:21, 4:20, 뎀전 4:10-11, 유 24-25.
 5.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봉사의 목적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사 43:7, 요 7:16-18, 17:1-4, 롬 9:21, 23, 빌 1:19-21상, 고전 6:19-20, 10:31). 이것은 우리가 단체적이고 건축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하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요 17:22-24).
- I. 여호와께서 스투바벨을 인장 반지(학 2:23)로 만드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대표로 여기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그를 사랑하고 믿으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스투바벨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믿으시는 분이시다(마 3:17, 17:5, 요 3:35, 17:2). 그러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돌보실 자격이 있으시다(마 16:18).

III. 스가라서는 등잔대의 일곱 등잔(4:2, 계 4:5)이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1:4)이 시라는 것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여호와의 일곱 눈과(숙 4:10) 구속하시는 어린양의 일곱 눈과(계 5:6) 건축을 위한 돌의 일곱 눈으로서(숙 3:9),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과 하나님의 집의 재건을 위한 분이시다.

- A. 스가라서 3장 9절에서 여호수아 앞에 놓인 돌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시 118:22, 마 21:42). 여호와께서 돌에 새기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에 의해 새겨지시고 잘리셨음을 가리킨다. 여호와께서 그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들여 일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루 만에,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에 이스라엘 땅의 죄악을 없애 버리실 것임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셨다(뎀전 2:24, 요 1:29).

1. 돌과 여호와와 어린양은 하나이다. 그리스도는 구속하는 어린양이시며, 건축하는 돌이시고, 또한 여호와이시다. 그리스도는 어린양-돌, 곧 구속을 위한 어린양과 건축을 위한 돌이시다 — 계 5:6, 속 3:9.
 2. 하나님의 건축물에서 그리스도는 건축물을 떠받치는 기초 돌이시고, 그분의 몸의 이방인 지체들과 유대인 지체들을 함께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시며, 하나님의 건축물에서 모든 것을 완결하는 은혜의 꼭대기 돌이시다 — 사 28:16, 고전 3:11, 엡 2:20, 벧전 2:6, 속 4:7.
 3.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일곱 눈을 가진 건축하는 돌이시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일곱 눈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있음을 계시한다 — 요 1:29, 속 3:9, 계 5:6.
 4. 그리스도는 일곱 눈 곧 일곱 영을 가진 건축하는 돌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옮겨 부으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로 변화시키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동안 그분의 일곱 눈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옮겨 부으신다 — 속 3:9, 고전 3:12상, 계 3:1, 5:6.
- B. 하나님의 건축물을 완성하시기 위해,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은 구속하는 어린양과 건축하는 돌이신 그리스도의 눈들이신데, 이 눈들은 우리를 감찰하고 살피며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리스도의 본질과 풍성과 부담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옮겨 붓기 위한 것이다 — 속 3:9, 4:7, 계 1:14, 5:6.
1. 어린양의 일곱 눈은 법리적인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입하고, 돌의 일곱 눈은 유기적인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입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에 의하여 이 땅에서 경륜적으로 움직이심으로 그분의 건축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 요 1:29, 행 4:11-12, 롬 5:10.
 2.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등, 곧 우리의 영과 그 안에 계시는 일곱 배로 강화되신 하나님의 영이 있다(잠 20:27, 계 4:5, 고전 6:17). 변화되려면,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열어 드려서, 일곱 등불이 있는 주님의 등이 우리 혼의 모든 방을 살피고 우리의 속부분들을 비추고 밝혀 주며 그 속부분들에 생명을 공급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3. 변화를 가장 많이 체험하는 사람은 주님께 완전히 열려 있는 사람이다.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께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믿는 이들 안에서 운행하심으로써, 그 추구하는 믿는 이들은 이기는 이들이 되도록 강화되어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 C.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고전 15:45하, 요 6:63상, 고후 3:6하), 이 생명 주시는 영은 또한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시며, 이 영은 생명의 영이시다(롬 8:2). 따라서 일곱 영의 기능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인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하여 신성한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 D.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은 일곱 등불로서, 우리를 태우시고 비추시며 폭로하시고 찾으시고 심판하시며 순수하게 하시고 정련하심으로 금등잔대들을 산출하시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하신다 — 계 4:5, 1:2, 4, 9-12, 20.
- E. 등잔대 양쪽에 있는 두 올리브나무는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 여호와의 영으로 채워진 기름의 두 아들이었다 — 속 4:1-6, 11-14.

1. 기름의 두 아들은 또한 현시대의 마지막 삼 년 반 동안 활동할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를 예표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 대환난 때에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 계 11:3-12, 12:17.
2.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신성한 기름의 아들들, 곧 즐거움의 기름이신 신선하고 현존하고 완결되신 영으로 충만하여, 등잔대의 빛나는 증거 곧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 등잔대 안으로 그 영을 흘려 보내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 계 1:12, 20, 시 45:7, 46:4, 92:10, 요 7:38.
 - a. 등잔대인 교회는, 신성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기름 곧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을 포함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견고한 체현이다.
 - b. 기름 자체가 금이다(숙 4:12). 이것은 금이 기름처럼 흐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더 많은 기름이 등잔대 안으로 더해진다는 것은 더 많은 금이 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c. 우리는 금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곧 신성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날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금으로 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 순수한 금등잔대가 될 수 있다 — 벧후 1:4, 계 3:18, 1:20, 21:18, 마 25:8-9.
 - d. 이 문제를 오늘날 우리의 체험에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영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금이신 것을 보게 된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 주어 그들에게 기름을 공급해 줄 때, 우리는 사실상 그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흘러나오셔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 숙 4:12-14, 요 7:37-39, 고후 3:3, 6, 8.
 - e.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에게서 다른 이들을 안으로 하나님을 옮겨 붓는 올리브나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름은 하나님을 흘려 내보내는 올리브나무가 된 사람들에게 의해 궁핍한 사람들에게 공급될 것이다 — 롬 11:17, 눅 10:34, 비교 요 7:37-39.